



김효주가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찬들러의 월윈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에서 릴리아 부를 제압한 후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민우(호주)가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 코스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 오픈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한국 골프 빛낸 두 남녀...美 무대에서 나란히 '승전보'

김효주 1년 5개월만 우승 연장 끝에 릴리아 부 제압

이민우도 PGA 투어 제패 '세계1위' 세플러에 1타 차 승

올해 김아린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서 챔피언에 오른 데 이어 김효주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호주 교포 이민우도 미국프로골프(PGA)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며 한국 골프 기세를 드높였다.

김효주와 이민우가 각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찬들러의 월윈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달러) 최종일 연장전에서 릴리아 부(미국)를 제압했다.

김효주와 릴리아 부는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4라운드를 마치고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첫 연장전에서 김효주는 1.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었



김효주 (1995년생)
연합뉴스

LPGA 투어 김효주 통산 7승 기록

날짜	우승대회명
2014	에비앙 챔피언십
2015	파운더스컵
2016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2021	HSBC 월드 챔피언십
2022.4	롯데 챔피언십
2023.10	어센던트 LPGA 베네피팅 VOA
2025.3.31	포드 챔피언십

고, 부는 3m 버디 퍼트를 놓쳤다.

김효주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3년 10월 9일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제패 이후 1년 5개월 만으로 이번 우승으로 LPGA 투어 통산 7승 고지에 올랐다.

올해 LPGA 투어에서 챔피언에 오른 한국 선수는 김아림에 이어 김효주가 두 번째다.

지난해 LPGA 투어 대회 출전이 18번에 그쳤고 톱10에 3번만 진입하는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간신히 확보했던 김효주는 올해 시즌 초반부터 우승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강호의 면모를 되찾았다.

이번 대회에 앞서 이번 시즌에 출전한 네 차례 대회에서 두 번 톱10에 입상하면

서 경기력이 되살아났음을 알렸던 김효주는 "겨울 훈련을 열심히 했다.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 몰랐다"고 기뻐했다.

L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1000만 달러를 넘어선 선수는 김효주가 28번째이며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 양희영, 고진영, 김세영, 박세리, 유소연, 최나연, 김민경에 이어 9번째다.

같은날 호주 교포 이민우도 PGA 투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다.

이민우는 3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코스(파70·747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오픈(총상금 95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0타의 성적을 낸 이민우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와 2019년 US오픈 챔피언 게리 우들런드(이상 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생애 처음으로 PGA 투어 대회를 제패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71만달러(약 25억1000만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0승을 거둔 이민지(호주)의 동생인 이민우는 그동안 DP 월드투어 3승, 아시안 투어 1승을 수확했고, PGA 투어에서는 우승이 없었으며 메이저 대회에서는 지난 2023년 US오픈 공동 5위가 최고 성적이다. 그는 2023년 11월 DP 월드투어 대회로 열린 호주 PGA 챔피언십 이후 1년 4개월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3라운드까지 2위에 4타 앞선 단독 1위였던 이민우는 이날 경기 막판 위기를 맞았다.

2위에 3타 차로 앞서 있던 16번 홀(파5)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물에 빠졌다.

그사이 앞 조에서 경기하던 2위 세플러가 16번 홀을 버디로 먼저 끝내 2타 차로 추격했고, 이민우는 결국 이 홀에서 1타를 잃어 1타 차로 쫓기게 됐다.

그러나 세플러가 남은 2개 홀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이민우 역시 17번과 18번 홀을 파로 막아 1타 차 리드를 지켜냈다.

세플러는 이민우와 1타 차였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189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이 그린에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1타 차를 따라잡지 못했다. 연합뉴스

DK 디케이 주식회사

봄,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도
이제 걱정 없이,
깨끗한 공기를 집 안으로.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